



국민 신뢰 회복과 지역 홍보 강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새로운 한 세기를 여는 아침이 밝았다.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지만 21세기 새 천년을 시작하는 올해는 특히 원자력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본다.

지난해에는 울주와 울진 등 신규 원전 예정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에 서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본 원자력 연료 제조 시설에서의 임계 사고, 그리고 연이어 국내에서 발생한 월성 원전 중수 누출 및 울진 원전 수소 누설 문제 등으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추락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서는 이처럼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작년에 매듭을 짓지 못한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홍보 환경 및 전략

새해에도 원자력을 둘러싼 홍보 환경이 결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4월에 있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원자력 문제는 지역에서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반핵 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웨덴·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원전 폐쇄 움직임과 함께 JCO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원전 추진 정책이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 원전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우려도 있다.

반면에 원자력 사업의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들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IMF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온 우리 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됨으로써 전력 수요 성장세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 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기여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해 KEDO와 본공사 계약이 체결된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한국 표준형 원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려 수출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남북 관계의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비판적 여론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원전 활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자력 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홍보 활동에 임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의 홍보 활동을 진단하고 변화된 홍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홍보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 신뢰의 회복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꾸준히 전파할 계획이며 만화·동화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친숙한 원자력의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또한 사회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E-Mail 신문인 <아톰뉴스>를 창간하여 보다 신속한 원자력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매체로서의 역할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홍보 활동 경험에 의하면 역시 가장 효과적인 활동중의 하나가 원전 견학 사업이다. 개인이 직접 원전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원자력에 대한 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작년에 매듭을 짓지 못한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있는 좋은 기회이며, 파급 효과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금년에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원전 시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계 전문 인력을 강사로 위촉하여 원자력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를 요청하는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언론을 통한 전문가 칼럼 기고 등을 적극 계획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학생·교사 등 차세대와 관련된 홍보 활동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교과 과정에 원자력에 관한 내용들이 올바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실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자력 교육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적극 활용할 예정

이며, 원자력을 이해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원자력교육연구회」창립을 1월 중에 마칠 계획이다.

원전 지역 홍보의 강화

장기 전원 개발 계획에 의한 원전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신규 부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의 확보 역시 원자력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지역에서의 홍보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성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한 TV 기획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도록 할 예정이며,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원전 시찰과 강습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말 「고리 원자력문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해

발등의불, 기후 변화협약 어떻게 대응

장소: 서울 삼공회의소 주최: 한국 원자력문화재단



진흥회」가 결성됨에 따라 4개 원전 지역에 모두 설립된 원자력문화진흥회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을 주축으로 지역에서의 친환경 세력 확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홍보 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여 각 지역에서의 여론 동향 파악과 바람직한 홍보 방향의 설정에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 주민 노래 자랑 대회를 비롯한 각종 향토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소년 소녀 가장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 독기와 효녀 효부 등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사생 대회, 백일장, 내 고장 탐험대 행사 등 지역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매년 일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원전이 지역 사회에 주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 사업 사례집의 발간을 비롯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지원 사업 내용 소개 및 각종 광고 매

21세기가 열리는 원년을 맞이하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자력 문화의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체를 활용한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전시 홍보 강화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전 과학공원 내의 전기에너지관의 방문객 목표를 20만 명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기에너지관을 엑스포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과학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고 중부 지역의 원자력 홍보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과학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상설전시관의 전시물을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체험 코너의 설치 등 대폭적으로 개선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원자력교실의 운영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

다. 또한 찾아다니는 능동적 홍보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동 홍보 전시물을 정비하고 각종 전시회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원자력에 관한 강의시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휴대용 모형물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21세기가 열리는 원년을 맞이하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자력 문화의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원자력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